



영원한 진리에 관한 지식을 얻음

“사람은 지식을 얻은 후에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배우기를 좋아했다”고 조지 큐 케논은 기록했다. “그가 지식을 사랑했던 것은 그 지식을 의롭게 사용할 때 오는 힘 때문이었다. 이 의심 많은 세상에 자신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처음 밝힌 바로 그날부터 그를 둘러쌌던 역경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지식을 습득해 왔다. 주님께서 그에게 연구하도록 명하셨으며, 그는 순종했다. … 성령을 통해 깨우침 받은 그의 생각은 모든 참된 원리를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분야들을 한 가지씩 습득해 나가 정통하게 되어 그 분야에서 교사가 되었다.”¹

1833년, 선지자와 커틀랜드 성도로 구성된 그룹은 복음을 공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해 1월, 주님의 명에 따라(교리와 성약 88:127~141 참조) 선지자는 성역을 베푸는 일을 위해 신권 소유자들을 훈련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갖추도록 선지자 학교를 조직했다. 학교는 선지자가 기거하고 있던 휘트니 상점 2층에서 열렸다. 약 25명이 참석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네 평(3.25×4.27미터) 정도 밖에 안 되는 방에서 복음을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훗날 사도, 칠십인 및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되었다. 선지자와 그 밖의 형제들은 종종 언어도 공부했지만 주로 복음 교리에 몰두했으며,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공부에 전념했다. 이 학교는 4개월 간 운영되었고, 이와 비슷한 형태의 학교가 이후 커틀랜드와 미주리에서도 운영되었을 때에는 수백 명이 참석하였다.

1833년 2월 27일에 있었던 한 모임에서 선지자는 중요한 계시를 받았다. 교회 초기에 술, 담배, 커피, 차 등의 사용은 사회와 교회 회원들 간에 일상



1833년 2월 27일, 선지자 학교의 모임에서 선지자는 몇몇 형제들 앞에서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진 계시를 받았다. 그런 다음 그는 강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모여 있는 형제들에게 계시를 읽어 주었다.

적인 일이었다. 선지자는 형제들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우려했다. 브리검 영은 이렇게 회고했다. “그들이 아침 식사 후 이 방에 모여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이는 일이었으며, 담배를 피우면서 왕국의 위대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 선지자는 강의를 하기 위해 방에 들어설 때 종종 담배 연기가 구름같이 자욱한 것을 발견하곤 했다. 그러한 점과 또 [씹는 담배로 인해] 더럽혀진 마루를 치우면서 아내가 불평했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장로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주님께 여쭙어 본 결과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진 계시를 받게 되었다.”²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계시에 있는 권고를 따랐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를 포함하여 신체적 및 영적인 축복들을 받았다.(교리와 성약 89:19)

영적인 지식의 보화가 선지자 학교에 참석하는 형제들에게 부어졌으며, 그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 쌓아 갔다. 1833년 3월 18일에 있었던 학교 모임에서 시드니 리그돈과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는 제일회장단에서 선지자의 보좌로 성별되었다. 그 후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충실하고 근면하도록 권고했으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늘의 시현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그리고 잠시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난 후 그 약속이 입증되었다.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의 눈이 열려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 많은 형제들이 구주와, 그리고 무수한 무리의 천사들과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한 하늘의 시현을 보았다.”³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곳에서 계시된 것들과 더욱 증진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선지자 학교에 참석한 사람들과 성도들의 얼굴은 큰 기쁨과 만족으로 계속 빛났다.”⁴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진리를 포함하며, 충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받아들이고 거짓 전통을 버린다.**

“몰몬이즘은 진리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모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를 느낍니다. 따라서 미신, 편협함, 무지 및 사제술의

속박은 일시에 그의 목에서 풀릴 것이며, 그의 눈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열리고, 진리는 사제술을 이길 것입니다. …

“… 물몬이즘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기 성도들의 교리는 진리입니다. … 거룩한 우리 종교의 첫째 되고 기본이 되는 원리는 우리가 제한 없이 혹은 제약을 받지 않고 인간들의 신조나 미신적인 관념에 의해 제지당하지 않는 가운데, 모든 것과 모든 진리를 받아들일 권리가 있으며,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분명하게 증명될 때,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증거가 있을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일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⁵

1843년 1월, 조셉 스미스는 교회 회원이 아닌 몇몇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후기 성도들과 다른 종파의 사람들 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후자는 모두 몇 가지 특정한 신조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며, 그러한 제한 때문에 그 종파의 회원들은 그 신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을 빼앗기는 반면, 후기 성도들은 … 존재하는 모든 참된 원리들이 알려질 때마다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⁶

“저는 다른 어떤 종파의 신조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신조에는 모두 어느 정도의 진리가 담겨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가고 싶고 모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조는 한계를 정하며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욥기 38:11)라고 말하므로,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⁷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한계를 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모든 거짓 전통들을 물리쳐야 합니다.”⁸

우리가 알아야 할 위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제정하신 것들입니다. 그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전능자의 일과 방법에 대해 말뚝을 세우고 경계를 정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성향입니다. … 창세 이전에 감추어진 것이 마지막 날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에게 드러났습니다. (교리와 성약 128:18 참조)⁹

“사람들이 [진리에] 대항하여 말할 때 그들은 저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하는 것입니다. … 참으로 중요한 것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 일고

의 가치도 없이 지나쳐 버려질 때, 저는 그러한 진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보고 가슴에 품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믿어 정죄 받는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불신 때문에 정죄 받습니다.”¹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나 지식을 인간이 거부할 때, 그는 정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닌 모세에게 말씀하시도록 기도했으며,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을 세속적인 율법으로 저주하셨습니다.”¹¹

“저는 언제나 진리가 오류를 이겨내고, 어둠이 빛 앞에서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¹²

영원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은 구원을 얻는 데 필수적이다.

“지식은 생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필수적입니다. 지식이 생명과 구원에 필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제사와 성직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을 없애고 지식을 없애 버리면, 여러분은 자신이 지옥의 정죄를 받기에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식은 계시입니다. 모든 형제 여러분, 이 중요한 비밀에 귀 기울이십시오.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¹³

“지식은 암흑과 불안과 의심을 없애 주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곳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 지식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존재들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아십니다. 그분은 모든 자를 다스릴 힘을 갖고 계십니다.”¹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만큼 우리는 악마에게 내려가는 것이며 지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이는 구원 받을 수 없으며, 우리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게 되고, 악을 점점 더 깊이 생각하게 되어 우리의 마음에는 선을 위한 공간이나 선에 대해 생각할 공간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선합니다. 그분이 충실한 분이려면 여러분도 충실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에 덕을, 덕에 지식을, 그리고 모든 선한 것을 구하십시오.(베드로후서 1:5 참조)

“... 사람은 지식을 얻은 후에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식을 얻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지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어

그 결과 더 큰 세력을 갖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악한 힘에 의해 포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지식을 주는 계시가 필요합니다.”¹⁵

조셉 스미스는 1843년에 다음 내용을 가르쳤으며, 그것은 이후 교리와 성약 130편 18~19절에 기록되었다. “이 생에서 우리가 얻는 예지의 원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부활 때에 우리와 함께 일어나리라. 그리고 만일 어느 사람이 이 생에서 자신의 부지런함과 순종을 통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는다면, 장차 올 세상에서 그 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¹⁶

조셉 스미스는 1843년에 다음 내용을 가르쳤으며, 그것은 이후 교리와 성약 131편 6절에 기록되었다. “무릇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음이 불가능하니라.”¹⁷

우리는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영원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조지 에이 스미스는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하는 동안 이렇게 보고했다. “조셉 스미스는 모든 남자와 여자가 지식의 근원이신 주님에게서 지식을 얻기 위해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쳤으며, 계시된 복음의 약속은 이러한 길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의 목적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게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¹⁸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형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주님께서는 후기에 가져다주신 이 위대한 사업에 대해 제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간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형제님은 주님께서 이 세대를 위해 저에게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의 성역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제가 얼마나 단순하고 미약한 말로 전했다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형제님이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에게서 오는 지식을 부지런히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이 증거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¹⁹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회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하는 한 형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책 중 형제님이 구할



“나는 그분에게서 오는 지식을 부지런히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분의 영이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수 있는 모든 책들을 연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믿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형제님의 마음은 진리로 인도될 것입니다.”²⁰

“하나님의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시간과 경험, 그리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명상 후에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 인간의 마음이어! 만일 그대가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고자 한다면, 가장 먼 하늘까지 솟아올라 가장 어두운 심연과 영원의 광활한 공간을 살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헛된 생각에 비하여 얼마나 고상하고 고귀한 것입니까! …

“… 정직, 절제, 솔직함, 엄숙함, 덕, 청결, 온유, 순진함의 면류관이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머리에 씌워지게 하고, 마침내 악이나 허위나 위선이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이같은 환란이 있고 난 후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한다면, 그리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간절하게 기도

하고 신앙을 행사한다면, 그분은 성령으로서,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로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실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21:26 참조)²¹

**우리는 영원한 진리의 지식을 한 번에 조금씩 얻으며, 우리가
그 지식을 감당할 수 있는 속도만큼 빨리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지식을 한 번에 다 알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에 조금씩 알아 가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²²

“여러분이 사다리에 오를 때에는 아래서부터 시작하여 한 계단씩 올라가야만 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시작하여 승영의 원리를 모두 다 배울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들을 모두 배우게 되는 것은 휘장을 통과하고 나서도 한참 후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무덤을 넘어서서도 우리가 구원과 승영에 대해 배울 것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²³

조셉 스미스와 제일회장단에 있는 그의 보좌들은 나부로 집합하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었다. “이 위대한 사업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곳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왕국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일을 도울 뿐 아니라, 제일회장단과 교회의 다른 총관리 역원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특권을 얻고, 그들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에베소서 3:18~19)게 될 때까지 더 높은 예지의 단계로 올라갈 것입니다.”²⁴

“하나님께서서는 십이사도에게 알려 주실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조셉에게 밝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약한 성도라도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한 빨리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이웃에게] 너는 여호와의 알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예레미야 31:34 참조)”²⁵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xii쪽을 참조한다.

- 265쪽 첫째 단락을 읽는다. 우리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과 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습관이나 개념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265쪽 마지막 단락 전체를 복습한다. 지식은 언제 여러분의 삶에서 어둠과 의심을 몰아내었는가? 여러분은 진리의 지식을 얻는 것이 왜 구원을 얻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가?(몇 가지 예를 위해 265~266쪽을 참조한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가 지식을 잃기 원한다는 것과(265~266쪽)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266~268쪽) 이 두 가지 대조되는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우리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몇 가지 예를 위해 261~263, 266~268쪽을 참조한다.) 267쪽 하단에서 시작하는 단락을 복습한다. 이 단락에 열거되어 있는 특징들을 몇 가지 골라 본다. 이 특징들은 각각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얻도록 준비시키는가?
- 268쪽 둘째 단락 전체를 읽는다. 복음의 원리를 배우는 것과 사다리를 오르는 것의 비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은 계속해서 복음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 왔는가?
- 본 장의 마지막 단락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가?

관련 성구: 잠언 1:7; 디모데전서 2:3~4; 니파이후서 28:29~31; 엘마서 5:45~47; 교리와 성약 1:17~28

주

1. 조지 큐 케는, *The Life of Joseph Smith, the Prophet*(1888년), 189쪽.
2. 브리검 영, *Deseret News: Semi-Weekly*, 1868년 2월 25일, 2쪽; 현대화된 대문자 표기법.
3. *History of the Church*, 1:334~335; 1833년 3월 18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개최된 선지자 학교 모임 기록에서;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가 보고함.

4. *History of the Church*, 1:334; "History of the Church"(원고)에서 발췌, book A-1, 281쪽, 교회 기록 보관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5. 조셉 스미스가 아이작 갠런드에게 보낸 편지, 1839년 3월 22일, 미주리 주 리버티, 리버티 감옥,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40년 2월, 53~54쪽; 현대화된 철자법 및 문법.
6. *History of the Church*, 5:215; "History of the Church"(원고), book D-1, 1433쪽, 교회 기록 보관소.
7. *History of the Church*, 6:57; 현대화된 구두법; 1843년 10월 15일,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라드 리차즈가 보고함.
8. *History of the Church*, 5:554; 단락 구분 변경; 1843년 8월 27일,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라드 리차즈와 윌리엄 클레이튼이 보고함.
9. *History of the Church*, 5:529~530; 단락 구분 변경; 1843년 8월 13일,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라드 리차즈가 보고함.
10. *History of the Church*, 6:477; 1844년 6월 15일,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토머스 불릭이 보고함; 또한 부록, 562쪽, 세 번째 항목 참조.
11. *History of the Church*, 5:555; 1843년 8월 27일,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라드 리차즈와 윌리엄 클레이튼이 보고함.
12. 조셉 스미스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보낸 편지, 1834년 9월 24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Evening and Morning Star*에 게재됨, 1834년 9월, 192쪽.
13. 마서 제인 노울튼 코레이가 1843년 5월 21일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를 보고하면서 인용함; Martha Jane Knowlton Coray, Notebook, 교회 기록 보관소.
14. *History of the Church*, 5:340; 현대화된 대문자 표기법; 단락 구분 변경; 1843년 4월 8일,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라드 리차즈와 윌리엄 클레이튼이 보고함.
15. *History of the Church*, 4:588; 1842년 4월 10일,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이 보고함.
16. 교리와 성약 130:18~19; 1843년 4월 2일, 일리노이 주 라무스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가르침.
17. 교리와 성약 131:6; 1843년 5월 16일과 17일에 일리노이 주 라무스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가르침.
18. 조지 에이 스미스, *Deseret News: Semi-Weekly*, 1870년 11월 29일, 2쪽.
19. *History of the Church*, 1:442; 1833년 11월 19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조셉 스미스가 모세스 니커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20. *History of the Church*, 6:459; 1844년 6월 12일,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조셉 스미스가 워싱턴 터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21. *History of the Church*, 3:295~296; 단락 구분 변경; 1839년 3월 20일, 미주리 주 리버티 감옥에서 조셉 스미스와 그 밖의 사람들이 에드워드 파트리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이 편지의 일부는 이후 교리와 성약 121, 122 및 123편에 포함되었다.
22. *History of the Church*, 5:387; 1843년 5월 14일, 일리노이 주 엠름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이 보고함.
23. *History of the Church*, 6:306~307; 1844년 4월 7일,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 윌라드 리차즈, 토머스 불릭, 윌리엄 클레이튼이 보고함; 또한 부록 562쪽, 세 번째 항목 참조.
24. *History of the Church*, 4:186; 1840년 9월,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조셉 스미스와 제일회장단에 있는 그의 보좌들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40년 10월, 179쪽.
25. *History of the Church*, 3:380; 1839년 6월 27일, 일리노이 주 커머스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라드 리차즈가 보고함.